한국불교학회 40년, 새로운 결집 시작되다

11월 9일 40주년기념 학술대회… 100여 불교학자 모여

한국불교학회의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학의 현황을 짚고 미래방향을 모색하는 불교학 결집대회가 열었다. 한국불교학회(학회장 김용표)는 11월 9일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 등 문화관에서 '결집, 한국불교학 40년, 그 연구성과와 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40주년 기념식에는 김용표 한국불교학회 학회장을 비롯해, 권기종, 이평래, 김선근 등 한국불교학회 역대 회장들을 비롯해 최용춘 교불련 회장 등 100여 학자들이 모여 40주년의 의미와 한국불교의 발전에 대한 열의를 다졌다.

기념식에서 김용표 학회장은 "이번 40년을 맞아 현대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한국불교학의 미래방향과 국제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대회시작을 알렸다.

첫 한국불교학술상 시상…권오민 교수

이날 40주년 기념식에서는 40주년을 기념해 첫 한국불교학술상 시상이 진행됐다. 학술상은 권오민 경상대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기종 한국불교학술상 선정위원장은 "권오민 교수의 〈상좌 슈리라타와 경량부〉는 한국불교학계의 독자적인 연구역량을 보여주는 역작"이라며 "1000페이지의 분량 속에 경량부에 대한 주제를 명쾌히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권오민 박사는 "40년 동안 걸어온 길은 단순하다. 아비달마에서 구사론 등을 연구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아비달마를 비롯해 많은 불교의 영역이 대중들이 접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남은 학자로서의 삶동안 이런 부분을 보다 본격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40주년 기념식에는 권기종, 이평래, 최용춘 교수 등 100여 학자들이 참석해 불교학 발전을 모색했다.

불교학 융합 등 미래연구 기대

원로학자 '한국만의 색채지녀야'

이날 자리에서는 불교학술원 소속 묘주스님이 한국불교학회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원로학자 "우리사상 돌아보는 계기 되길"

기념식에 이어 학명세미나실에는 원로불교학자들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원로불교학자로는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가 초청됐다.

오형근 교수는 후학들 앞에서 "한국불교학이 세계 속에서 널리 알려지기 위해 한국만의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한국선, 또 원효를 비롯한 한국고승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 교수는 특히 "원효대사는 불교사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사상가로 한국 선종의 효시"라며 "우리가 가진 보배를 돌아보지 않고 외부에서만 찾으려는 요즘 불교학계 풍토가 아쉽다"고 밝혔다.

또 1분과 인도남방불교 좌장으로는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 2분과 응용불교 좌장으로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3분과 중국 티베트불교 좌장으로 신규탁 연세대 교수, 4분과 한국일본불교 좌장으로 최효진 동명대 교수, 5분과 실천불교에 인덕원 성운스님 등을 위시로 다양한 학술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실천불교 분과에서는 불교여성과 사회과학, 복지분야와의 접합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불교사회학, 불교경제학, 불교행정학, 불교생태학 등 기존 불교사회과학 분야와 더불어 불교의학, 불교미디어 등 다양한 응용불교 분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학제간 연구를 통해 학문적 기초를 만들어가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지난 1973년7월7일 고(故) 홍정식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출범한 불교계의 대표 불교학술단체이다. 2006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매년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불교학〉는 67권 까지 나왔다. **노덕현 기자**

"사회문제 해결 위한 상생정신 확산하자"

11월 9일 씨튼연구원 20주년 심포지엄에서

종교간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한 종교의 사회기여를 추구해 온 '씨튼연구원'(원장 최현민 수녀)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하나뿐인 지구, 생태문제와 종교간 대화' 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미산 스님 등 100여 종교인들이 모여 종교화합과 상생정신의 확산을 다짐했다.

이날 최현민 원장은 "씨튼연구원이 2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인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종교간 대화는 매우 소중한 과제"라며 "생태 보전을 비롯한 우리 시대 중대한 과제를 함께 살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정신적 시대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공하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희중 대주교 또한 "현재 자연파괴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상황은 개개인의 이득을 따지며 대안과 시기를 가늠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모두가 절제와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삶의 양식을 통해 이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생태운동 다시금 전개할 때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길희성 서강대 교수가 기조강연 '환경생태계 위기와 현대종교' 를 발제했으며 김종욱 동국대 교수의 '불교의 생태친화적 자연관' , 서울대연구원 심원 스님의 '불교의 생태학적 인관관' 등이 발표됐다.

김종욱 동국대 교수는 "생태계는 곧 법계로 생태계 파괴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가 기여할 수 있다"며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 모두가 중심이 되자는 것이 불교의 생태친화적 자연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불교계 학자들은 이웃종교와 불교계에 빈그릇운동 재개 등 새로운 생태운동에 대한 요청을 제기했다.

이어 발표한 심원 스님은 "생태 친화적 인관관의 불교적 실천은 이미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불교 생태환경단체들의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빈그릇운동과 쓰레기 제로 운동 등을 다시금 활발히 펼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주교 사랑의씨튼수녀회가 운영하는 씨튼연구원이 출범한 것은 1993년 11월로 씨튼 수녀회 소속으로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였던 김승혜 수녀가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최근덕 성균관장, 개신교 신자인 길희성 서강대 교수 등과 뜻을 함께해서 만들었다. 이정배 목사(감리교신학대 교수), 이제민 신부(광주가톨릭대 교수),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 양은용 교무(원광대 교수), 최일범 성균관대 교수, 한순희 수녀(성심여대 교수)도 창립 멤버다. 세월이 흐르면서 김용표 동국대 교수와 전현식 연세대 교수, 송용민 신부(인천가톨릭대 교수),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최현민 수녀 등 후배들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시민 문화공간 위해 관악사지 복원해야"

불교문화재硏, '과천 관악사지 종합학술세미나' 서

경기도 기념물 제109호로 지정된 과천 관악사지가 등산객의 취사나 체육행사 등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악사지 복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관악산 연주암과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1월 8일 서울 종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관악사지 실태와 현황에 대해 밝혔다.

이날 김관수 여유당건축사무소장은 "관악산 정상부의 유일한 공터로 등산객들이 요리하고 상업행위 등도 진행되는 등 훼손이 심각하다"며 "'문화재 보호구역' 임에도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관악사지를 복원해 훼손을 막고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문화유적은 살아 숨 쉬는 형태로 보존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관악사지도 철저한 연구 과정을 거쳐 복원돼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등 보물 예고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11월 11일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등 문화재 7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平昌 上元寺 木造文殊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은 조선 1661년(현종 2)의 조성연대, 조각승 회감(懷鑒)을 밝히는 발원문과 많은 복장유물을 동반하고 있는 중요한 보살상이다.

환적 의천(幻寂 義天:1603~1690)이 작성한 발원문은 세 번에 걸친 상원사의 중창 내력, 문수보살상의 조성과정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전적(平昌 上元寺 木造文殊菩薩坐像 腹藏典籍)' 은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蜜經)과 〈묘법연화경 권6〉(妙法蓮華經 卷六)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에 대해 30일 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유식과 명상수행' 논단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11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유식불교와 명상수행' 을 주제로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이날 열린논단은 명상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이 발제를 맡는다. 인경 스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다가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으며, 동국대에서 고려후기 간화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방대학원대 명상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명상치료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간화선, 빛과 그림자' 학술대회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는 연세대 철학연구소와 11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연세대 외솔관 110호에서 '간화선, 빛과 그림자' 란 주제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기조발표에 이어 △이병욱 교수의 '천태학에서 본 간화선' △정영식 교수의 '화엄학에서 본 간화선' △서광 스님의 '심리학에서 본 간화선'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박한영 스님 추모 학술문화행사, 동국대서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의 길을 걸었던 '석전 박한영 스님' 을 추모하는 학술문화행사가 열렸다. 석전 박한영 축전위원회는 11월 12일 오후 3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중강당에서 '석전 박한영 스님의 지혜와 행적의 세계를 걷다' 를 주제로 석전 박한영 축전을 개최했다.

축전은 박한영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연구논문 발표회와 깨달음을 주제로 하는 '명상음악회'로 나뉘어 마련됐다. 특히 명상음악회에는 세계적 명상음악 연주자 나왕 케촉과 팝피아니스트 피터 케이터가 너 큰 호응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